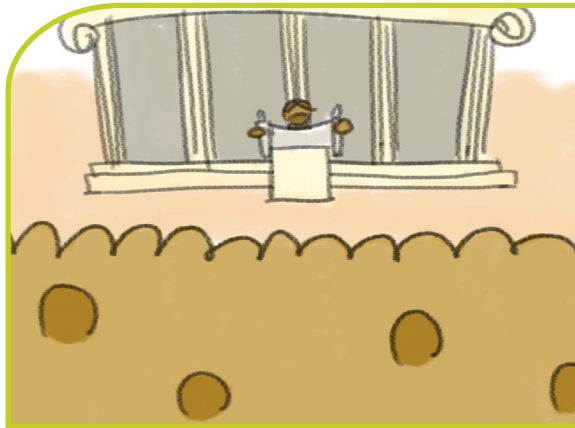


거뜰히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을 함께 읽어요



베드로전서 2:1-10
베드로후서 3:4-14
히브리서 11:32-12:2

생각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가 어떤 어려움과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게 힘주세요.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절당 1센트 혹은 장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rbbb.wycliffe.ca 416-888-2262

Copyright © 2012 by Wycliffe Canada. All rights reserved. 모든 저작권은 위클리프 캐나다에 있으며, 동의/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 및 온라인 게시를 금합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아시나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경기장 한 가운데서는 어린이 여러분이 경주를 하고 있어요. 또한 스탠드 가득 채운 관중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1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 버리고, 우리를 쉽게 몰아매는 죄를 벗어 버립시다. 2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쉬운 성경, 히브리서 1:1-2)

지금도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가는 것이 법으로 금지 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도 같은 처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놀림과 괴롭힘을 받기도 했어요. (히10:32-34)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힘을 내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끝까지 달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인도의 산골마을에 사는 카카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어렵고 힘

들 때, 그 소리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카카는 16년 동안이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 중에 2년 반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4년 동안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 엄청난 괴롭힘을 견뎌야 했습니다. 처음 쓴 글을 다듬는 과정을 거칠 때마다 산골짜기들을 10,000 km나 걸어 다녔습니다. 신약 성경이 1,000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마다 10km나 걸은 셈입니다. 그리고 매 세 쪽마다 한번씩 외딴 산골짜기에서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성도들은 성경 한 쪽마다 일주일씩은 감옥에서 지낸 셈이고, 한 사람으로 따지면 18년을 감옥에서 지낸 셈입니다.

(<https://wycliffe.org.uk/wycliffe/connected/stories-mts.html>)

또한 카카는 성도 네 명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조카가 종에 맞아 순교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카카와 동료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인도의 산골에는 수백 명의 성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카카와 그의 동료들의 흔들리지 않고 거뜰히 이겨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법적이거나 신체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복음 나누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과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거뜰히 이겨내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됩시다. 파이팅^^